외교분쟁 번질라 韓·中 신중 또 신중

한, 유감 표명 …유족 위로
중, 대사 외교부 방문취소

17일 오후 텅안쥔 광주 중국 총영사가 목포해경을 방문, 해경에 붙잡힌 중국 선원들을 만난 뒤 돌아가고 있다. 텅 총영사는 이날 중국 선원 사망 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과 중국 정부가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중국인 선원 사망사고'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건 개요를 통보하면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등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중국측에서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17일 외교통상부를 방문, 중국인 선원의 사망사고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외교가에서는 외교적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해경, 수사내용·동영상 비공개=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은 사건경위와 수사진행 상황 등과 관련 전 직원 함구령을 내리는 등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포해경은 17일 오전 11시께 노영어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목포항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중국선원들이 휘두른 쇠톱과 칼 등 흉기를 압수하고 선원 23명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압수품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해경은 쇠톱과 칼 등을 비닐로 휘감아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해 압수한 흉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 불법조업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상대로 분주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채증 동영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해경 측은 비공개로 일관했다.

목포해경은 또 직원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 외부에 사소한 것이라도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과 인터뷰 금지령을 내렸다.

◇중국 정부·언론 차분한 대응=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폭력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엄정 항의하면서 공정·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사건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 어민의 한국 수역 내 불법 조업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아니냐는 물음에 "중국 정부는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조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훙 대변인의 발언은 이날 새벽 주한 중국 대사관이 발표한 내용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이다.

중국 언론도 비교적 차분하게 이번 사건을 보도중이다.

중국 언론들은 대체로 문제의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했고, 해경의 단속에 칼 등 흉기로 극렬히 저항했다는 한국 측 주장을 상세히 전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삶 힘들어도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 대견스러워

김은영의 '그림 생각'

⑥ 부모의 마음

올해 수학능력시험이 이십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정에 수험생이 있든 없든 이 즈음이면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한껏 예민해진다. 행여 수능시험에 방해가 될까 출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통제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꿈인 경우가 많다. 그 꿈은, 실은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부모들의 꿈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 한다"고 했던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Jacques Lacan)의 말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학력이 존재를 규정하는 이 시대의 욕망이 만든 감옥에 너나 할 것 없이 갇혀있는 것이다. 하지만 '욕망'이라 책망 받을지언정 부모의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두고 지속되는 한결같은 발원이다.

한국미술사에서 조선 시대 전체를 대표할만한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단원(檀園) 김홍도(1745~1806?)의 작품 가운데 요즘 우리의 심경을 보여 주는 작품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단원풍속화첩' 속 스물다섯 점 가운데 하나인 '자리 짜기'가 그것이다. 일 하는 부모 뒤에서 글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림에서일망정 대견스럽다.

어머니는 물레로 실을 뽑고 있고 사방관(四方冠)을 쓴 아버지는 자리를 짜고 있다. '자리짜기' 속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양반으로 보여 진다. 가난한 살림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들이 공부하여 입신양명하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네 부모들도 그랬던 것 같다.

김홍도 작 '자리짜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단원도 육순을 넘긴 나이에 늦둥이 아들의 훈장선생에게 보낼 월사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였다고 한다. 시공을 초월한 한국부모들의 유별난 교육열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서해는 지금 전쟁터

해경·중 불법어선 충돌
올해 단속 선박 700여척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과정에서 최근 5년간 해경 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하는 등 황금 어장을 둘러싼 서해는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손도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이를 단속하는 해경이 더욱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월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후 지금까지 불법어업으로 우리 당국에 나포된 중국 선박 수는 총 4628척이다. 2010년 370건이던 불법어업 선박 수는 지난해 5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10월14일까지 333척에 달한다.

통상 불법어업 단속의 3분의 2가 10월15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단속되는 중국선박은 600~7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어기 해제 첫날인 지난 16일 불법 조업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고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해경 소속 고(故) 이청호 경사가 지난해 12월12일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나포 중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를 찔려 숨졌다. 또 목포해경 소속 고(故) 박경조 경위도 2008년 9월25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73km 해역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중국 선원들은 선체 외부 난간에 끝이 뾰족한 1~2m 길이의 쇠창살을 어선 양측에 수십 개씩 꽂고, 어선 양옆에 1.5m 높이의 철판을 추가로 감싸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선원의 격렬한 저항에 맞선 해경의 대응 수위도 강경해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중국 선원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

2010년 12월에는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중국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고무탄 가까이서 맞으면 두개골 함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목포 해경이 쏜 고무탄에 중국 선원이 숨지면서 고무탄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은 미국 CTS사가 제조한 고무탄발사기 50정을 사용하고 있다. 고무탄은 지름 4cm의 크기로 무게는 60g이다. 고무탄 발사기의 유효 사거리는 3~30m다. 10m 이내의 거리에서 고무탄에 맞으면 야구공에 맞는 수준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얼굴에 고무탄을 맞으면 두개골이 함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탄발사기는 2008년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단속중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지자 보완 대책으로 2009년 보급됐다. 경찰 역시 고무탄을 쏠 수 있는 독일산 다목적 발사기 26정과 미국산 7정 등 총 33정을 보유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빛나만평

- 김종두

고루작작 하는구나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JNJ TOUR 여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vent .1 2인 예약시 관광지무료쿠폰! 3인 예약시 렌트24시간 중형차급! 4인 예약시 아이스 뮤지엄 2매!
Event .2 선박 20% 할인!
쿠폰01 노력항내관광지 할인쿠폰
쿠폰02 노력항내 펜션 리조트 호텔 할인
쿠폰03 노력항내 렌터카 할인
NAVER 정남진투어 검색 를 검색하세요!
배타고 가는 제주여행~! 제주여행 PKG 일~목 149,000 금~토 169,000
한라산등반 1박2일 129,000
일정안내
1일차 중식/수목원테마파크(세계적인 얼음조각 얼음궁전과 트릭아트전시관) /도깨비 도로(거꾸로 올라가는듯한 자동차! 신비한 착시현상)/한라 수목원(60여종의 희귀식물과 광이오름을 끼고 삼림욕의 최고명소)/천왕사(한라산 중턱에 기암괴석들을 병품처럼 두르고 있는 아름다운절)/석식 후 숙소이동
2일차 조식후 전일관광/유리의성(세계의 유명한 유리예술 조형물이 실내_외에 대규모로 전시되있는곳) /화순 곶자왈 화산생태 숲길 올래걷기(40분) /점보빌리지(코끼리쇼 국내 유일의 세계 최대 코끼리 테마 쇼) /중식/쉬리언덕(롯데 풍차정원~중문해수욕장 아름다운 올래길) /*직불관광*(서귀포 칠십리 유람선 OR 더마파크 / 서커스월드) /석부작감귤테마농원(황금물결이 춤추는 감귤밭과 제주 특작물 재배 현장체험) /천지연폭포(하늘과 땅이 만나는곳! 기암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새연교(작고 아름다운 무인도 새섬을 연결한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 /시크릿성테마파크(누드조각. 누드미술관.성문화관등 예술로 승화시킨 종합성문화공원) /석식후숙소이동
3일차 조식후 전일관광/공예품 전시장(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제주공예품등) /선녀와나무꾼(60~70년대 그때 그시절로의 여행) /*직불관광*(매직마술쇼OR몽골리안 마상쇼) /제주마 승마체험(제주의 상징 제주마와 함께 짜릿한 승마체험) /중식/성읍민속마을(전통초가 관람 제주인의 억척스런 생활 엿보기) 일출랜드(천가지 아름다움이 있는곳 미천동굴과 자연테마공원) /신양섭지코지(자연 수석장으로 불리는 해안 절경 명소, 성산일출봉 조망) /아트랜드(분재와 미술관의 만남 귀여운 반달곰의 재롱도 특별함을 선사함
포함사항 : 전일정/입장료/조식2회/중식2회/석식2회/숙박료/차량료/안내가이드/주차료/간식/생수
불 포 함 : 기사.가이드 봉사료(1인 만원)/직불관광2회 기타등.